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재은^{1,†} · 최중석² · 성영환³ · 이정희⁴ · 김수영⁵ · 최묘선⁶ · 이영조⁷ · 김현정⁸ · 정기쁨⁹

¹성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객원교수 · ²동덕여자대학교 보건향장학 박사
³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겸임교수 · ⁴신경대학교 뷰티과, 겸임교수
⁵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교수 · ⁶김포대학교 뷰티아트과, 초빙교수,
⁷국제대학교 뷰티과, 겸임교수 · ⁸한성대학교 뷰티예술과, 겸임교수 · ⁹김포대학교 뷰티아트과, 강사
(2021년 3월 26일 접수: 2021년 4월 28일 수정: 2021년 4월 29일 채택)

Effects of Beauty Experts' Self-Management on Self-Efficacy and Business Performance

Jae-Eun Lee^{1,†} · Jung-Seuk Choi² · Young-Whan Sung³ · Jung-Hee Lee⁴ · Su-Young Kim⁵
Myo-Sun Choi⁶ · Young-Jo Lee⁷ · Hyun-Jung Kim⁸ · Ki-Bbeum Jung⁹

¹Department of Beauty Design, Sungkyul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³Department of Beauty & cosmetic, Osan University

⁴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Design, Shing yeong University

⁵Department of Beauty & cosmetic, Osan University

⁶A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art Course, Kimpo University

⁷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Coordination, Kookje University

⁸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and Arts, Hansung University

⁹Department. of Beauty art Course, Kimpo University

(Received March 26, 2021; Revised April 28, 2021; Accepted April 29, 2021)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뷰티 전문가들의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기 효능감과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위함이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하였고, 그 결과 자기관리와 자기조절감, 도전감 간 상호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관리가 경영성과, 환경성과, 고객성과, 시장성과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 환경성과, 고객성과, 시장성과에 통계적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뷰티 전문가,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경영성과, 시장성과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wha88@naver.com)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ositively analyze the self-efficacy and the impact of self-managemen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o help improve self-efficacy and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self-management of beauty professionals. The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there was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self-management, self-regulation, and challeng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customer performance, and market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customer performance, and market performance. Was found to appear. Therefore, I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self-effica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qualitative improvement in self-management.

Keywords : Beauty expert, Self management, Self-efficacy, Business performance, Market performance

1. 서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에 철저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1].

‘성공의 심리학’ 저자인 캐럴 드웍(Carol Dweck) 스탠퍼드대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관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생활, 직장생활 등의 영역에 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2].

자기 관리란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위해 행동 학습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이나 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을 자기 관리 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여건을 수정하고 행동 결과를 조정하며 관리하는 심리 행동적 전략의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3].

자기 관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승리를 목표로 한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성공한 선수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운동 수행에 필요한 자기 관리를 잘하며,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 다른 연구에서도[5] 우수 선수들이 갖는 심리행동적인 특징을 규명하는 과

정에서 성공에 대한 집념이 강할 때 목표 설정에 따른 훈련, 심리적 준비 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였다. 대학 선수들의 자기 관리행동이 자신감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에서 자기 관리는 스포츠 자신감을 향상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다. 이러한 운동선수의 자기 관리를 몸 관리, 대인 관리, 훈련관리, 정신관리의 요인으로 자기 관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7],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뷰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관리 연구가 전무하여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 관리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8-10]에서 자기 효능감이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한다. 자기 관리는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11] 자기 효능감이 높은 스포츠인들은 운동하는 데 있어 장애를 보다 덜 지각하거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기 효능감은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연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뷰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12] 자기 효능감을 주어진 문제에 대해 도전하며, 본인의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뷰티서비스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자기 관리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13] 기업경영에서 경영자 자신의 자기 관리는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경영성과는 개인과 조직이 설정한 목표 달성과 업무수행 결과로 종사원이 이것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비재무적 경영성과로 정의하고 있다[14]. 대부분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경영성과의 대부분이 경영학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도 효율적 운영과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15, 16]. 그러므로 뷰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자기 관리가 운영하는 뷰티숍의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뷰티 서비스업은 타 직업군에 비해 장시간 근무와 뷰티 전문가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17].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정노동 정도가 높아 자기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뷰티 전문가의 자기 관리는 자기 효능감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뷰티 서비스 산업 전문가들의 자기관리가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뷰티 서비스 분야에서 시작에 불과한 자기관리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나아가 뷰티 서비스 전문가들의 인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계 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 소재 뷰티 전문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에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의 표본추출을 통하여 총2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1년 1월 20일-2월 20일(4주

간) 간 실시하였으며 최초 302부를 배포하여 29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자료의 누락 및 불성실 응답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최종 296명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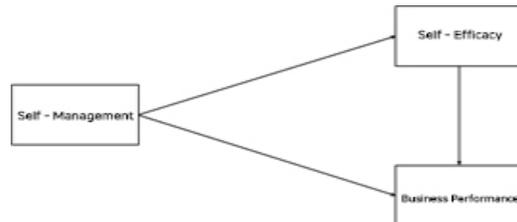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N=296)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Female	266	89.9
	Male	30	10.1
age	20's	62	20.9
	30's	86	29.1
	40's	99	33.4
	over 50	49	16.6
Major	Hair	107	36.1
	Skin	101	34.1
	Make-up	29	9.8
	Nail	32	10.8
	cosmetics	27	9.1
Career	not more than 1 year	90	30.4
	not more than 3 year	56	18.9
	not more than 5 year	50	16.9
	not more than 10 year	48	16.2
	more than 10 year	52	17.6

2.3. 측정도구

2.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경영성과였다.

자기관리 측정도구는 [18]의 선행연구를 사용하여 건강관리, 기술관리, 대인관리, 외모관리, 비대면관리, 지식관리의 6개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19]의 선행연구 자기조절감, 도전감, 자신감의 3개 하위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20]의 선행연구를 사용하여 직무성과, 환경성과, 고객성과, 시장성과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2.3.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경영성과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Table 2>, <Table 3>, <Table 4>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내적일치도를 통한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이다. 요인 분석의 요인

Table 2.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of Self-management Scale

Item	Question	Component						Communality
		1	2	3	4	5	6	
KM	23	.800	.088	.049	.315	.053	.031	.753
	22	.784	.046	.162	.152	.024	.170	.696
	25	.755	.146	.226	.089	.130	.165	.694
	24	.716	.142	.020	.243	.023	.097	.602
	21	.696	.227	.110	.063	.061	.323	.660
AM	20	.131	.793	.209	.175	.142	.080	.748
	17	-.009	.751	.336	.200	.119	.148	.752
	18	.141	.738	.089	-.039	.018	.320	.676
	19	.294	.716	.077	.206	.118	.011	.662
	16	.135	.564	.371	.084	.087	.274	.564
IM	5	.095	.223	.811	.142	.047	.139	.757
	6	.125	.102	.809	.064	.127	.204	.743
	7	.139	.225	.806	.112	.086	.080	.745
	8	.217	.346	.586	.027	.078	.360	.646
H	4	.229	.081	.075	.838	.051	.005	.770
	2	.146	.102	-.006	.790	.090	.124	.679
	1	.081	.173	.128	.778	.038	-.015	.659
	3	.288	.080	.137	.701	.047	.053	.604
UM	12	.034	.103	-.006	.046	.877	.108	.794
	15	.080	.149	.071	.039	.870	.075	.798
	14	.050	.100	.270	-.044	.740	.086	.642
	13	.057	.002	.004	.163	.739	.079	.582
TM	10	.202	.169	.154	.084	.125	.820	.789
	11	.221	.177	.213	.042	.153	.795	.783
	9	.171	.185	.200	.041	.105	.769	.708
Eigenvalue		8.210	2.702	2.267	1.847	1.347	1.133	
% of Variance		32.841	10.807	9.069	7.389	5.389	4.531	
Cumulative %		32.841	43.649	52.718	60.107	65.496	70.027	
Cronbach's α		.866	.851	.861	.836	.838	.855	

KMO=.875 Bartlett's test $\chi^2=4114.804$ (df=300, $p<.001$)

KM: Knowledge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IM: Interpersonal Management.
H: Healthcare. UM: Untact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요인적재치 제곱의 분산이 최대한 도출되도록 직각회전(orthogonal factor rotation)의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와 문항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성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관찰변인(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ayer-Olkin)와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은 그 값이 .50 이상만을 유의한 문항으로 추출하였다.

2.3.4. 뷰티전문가의 자기관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Table 2〉는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가 변수의 수와 문항이 요인 분석 가능한 자료인지 KMO 지수를 확인한 결과 .875로 요인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은 $X^2=4114.804$,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이 낮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은 KMO 지수와 관련하여 .90이상이면 매우 좋고, .80 양호, .60-.70 보통이고, .50이하면 부적절하다 라고 보고되고 있다(Kaiser & Rice 1974). 고유치 1.0 이상, 요인적재치 .50을 수렴

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지식관리 5문항, 외모관리 5문항, 대인관리 4문항, 건강관리 4문항, 비대면관리 4문항, 기술관리 3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 25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6개 하위요인의 누적변량은 70.02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문항의 공통성은 .564-.798으로 .50 이상을 나타내어 문항이 요인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지식관리 .866, 외모관리 .851, 대인관리 .861, 건강관리 .836, 비대면관리 .838, 기술관리 .85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02로 나타났다.

2.3.5.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Table 3〉는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가 변수의 수와 문항이 요인 분석 가능한 자료인지 KMO 지수를 확인한 결과 .829로 요인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은 $X^2=1844.761$,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이 낮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유치 1.0 이상, 요인적재치 .50을 수렴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감 4문항, 도전감 3문항으로 2개 하위요인 4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2개 하위요인의 누적변량은 76.7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문항의 공통성은 .584-.923으로 .50 이상을 나타내어 문항이 요인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of Self-efficacy scaler

Item	Question	Component		Communality
		1	2	
Self-regulation	4	.916		.910
	2	.914		.923
	1	.812		.717
	3	.640		.584
Challenge	6		.860	.805
	5		.804	.733
	7		.792	.701
Eigenvalue		4.357	1.015	
% of Variance		62.244	14.505	
Cumulative %		62.244	76.750	
Cronbach's α		.895	.831	

KMO=.829 Bartlett's test $x^2=1844.761$ (df=21, $p<.001$)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자기조절감 .895, 도전감 .83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90으로 나타났다.

2.3.6. 경영성과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Table 4〉는 경영성과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가 변수의 수와 문항이 요인 분석 가능한 자료인지 KMO 지수를 확인한 결과 .927로 요인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은 $\chi^2=3438.014$,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이 낮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유치 1.0 이상, 요인적재지 .50을 수렴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시장성과 5문항, 직무성과 5문항, 환경성과 5문항, 고객성과 3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 18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4개 하위 요인의 누적변량은 70.7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문항의 공통성

은 .584-.894로 .50 이상을 나타내어 문항이 요인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영성과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시장성과 .995, 직무성과 .860, 환경성과 .848, 고객성과 .813,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31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version 26.0을 이용하여 일련의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다.

Table 4.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of business performance

Item	Question	Component				Communality
		1	2	3	3	
Market Performance	18	.875	.224	.166	.224	.894
	20	.864	.219	.136	.155	.837
	19	.805	.218	.242	.127	.770
	17	.798	.250	.251	.185	.797
	16	.703	.191	.233	.347	.706
Job performance	4	.225	.834	.189	.099	.791
	5	.207	.813	.156	.107	.740
	3	.159	.767	.125	.175	.660
	6	.198	.674	.245	.243	.612
	2	.245	.542	.346	.100	.483
Environmental Performance	11	.185	.167	.776	.160	.690
	7	.146	.094	.768	.017	.621
	9	.090	.204	.726	.296	.665
	8	.208	.288	.685	.192	.632
Customer Performance	10	.259	.213	.679	.101	.584
	13	.337	.185	.128	.822	.840
	14	.241	.183	.244	.804	.797
	12	.240	.393	.337	.537	.614
Eigenvalue		8.458	1.753	1.476	1.044	
% of Variance		46.991	9.740	8.201	5.799	
Cumulative %		46.991	56.731	64.932	70.730	
Cronbach's α		.955	.860	.848	.813	

KMO=.927 Bartlett's test $\chi^2=3438.014$ (df=153, $p<.001$)

3. 연구결과

3.1.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경영성과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5〉는 뷰티전문가의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경영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관리는 대인관리($r=.277^{**}$), 기술관리($r=.207^{**}$), 비대면관리($r=.177^{**}$), 외모관리($r=.360^{**}$), 지식관리($r=.466^{**}$), 자기조절감($r=.199^{**}$), 도전감($r=.252^{**}$), 직무성과($r=.274^{**}$), 환경성과($r=.234^{**}$), 고객성과($r=.168^{**}$), 시장성과($r=.224^{**}$)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리는 기술관리($r=.508^{**}$), 비대면관리($r=.256^{**}$), 외모관리($r=.580^{**}$), 지식관리($r=.391^{**}$), 자기조절감($r=.465^{**}$), 도전감($r=.341^{**}$), 직무성과($r=.299^{**}$), 환경성과($r=.250^{**}$), 고객성과($r=.388^{**}$), 시장성과($r=.262^{**}$)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관리는 비대면관리($r=.294^{**}$), 외모관리($r=.487^{**}$), 지식관리($r=.461^{**}$), 자기조절감($r=.486^{**}$), 도전감($r=.394^{**}$), 직무성과($r=.423^{**}$), 환경성과($r=.207^{**}$), 고객성과($r=.410^{**}$), 시장성과($r=.301^{**}$)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대면관리는 외모관리($r=.286^{**}$), 지식관리($r=$

$.195^{**}$), 자기조절감($r=.224^{**}$), 도전감($r=.270^{**}$), 직무성과($r=.287^{**}$), 환경성과($r=.224^{**}$), 고객성과($r=.264^{**}$), 시장성과($r=.309^{**}$)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는 지식관리($r=.424^{**}$), 자기조절감($r=.440^{**}$), 도전감($r=.333^{**}$), 직무성과($r=.374^{**}$), 환경성과($r=.217^{**}$), 고객성과($r=.403^{**}$), 시장성과($r=.355^{**}$)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식관리는 자기조절감($r=.436^{**}$), 도전감($r=.471^{**}$), 직무성과($r=.479^{**}$), 환경성과($r=.288^{**}$), 고객성과($r=.313^{**}$), 시장성과($r=.285^{**}$)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조절감은 도전감($r=.621^{**}$), 직무성과($r=.475^{**}$), 환경성과($r=.367^{**}$), 고객성과($r=.498^{**}$), 시장성과($r=.366^{**}$)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전감은 직무성과($r=.479^{**}$), 환경성과($r=.374^{**}$), 고객성과($r=.420^{**}$), 시장성과($r=.418^{**}$)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성과는 환경성과($r=.554^{**}$), 고객성과($r=.571^{**}$), 시장성과($r=.559^{**}$)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경성과는 고객성과($r=.560^{**}$), 시장성과($r=.522^{**}$)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객성과는 시장성과($r=.619^{**}$)에 통계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with variable

	self-management					self-efficacy			business performance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	1											
2	.277**	1										
3	.207**	.508**	1									
4	.177**	.256**	.294**	1								
5	.360**	.580**	.487**	.286**	1							
6	.466**	.391**	.461**	.195**	.424**	1						
7	.199**	.465**	.486**	.224**	.440**	.436**	1					
8	.252**	.341**	.394**	.270**	.333**	.471**	.621**	1				
9	.274**	.299**	.423**	.287**	.374**	.479**	.475**	.479**	1			
10	.234**	.250**	.207**	.224**	.217**	.288**	.367**	.374**	.554**	1		
11	.168**	.388**	.410**	.264**	.403**	.313**	.498**	.420**	.571**	.560**	1	
12	.224**	.262**	.301**	.309**	.355**	.285**	.366**	.418**	.559**	.522**	.619**	1

** $p<.01$.

1. Healthcare, 2. Interpersonal Management, 3. Technical Management, 4. Untact Management,
5. Appearance Management, 6. Knowledge Management, 7. Self-Regulation, 8. Challenge,
9. Job performance, 10. Environmental Performance, 11. Customer Performance,
12. Market performance

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2.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6〉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 조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2.032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공차값은 .564-.879 였으며, VIF값은 1.138-1.77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조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350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337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5.940$,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인관리($\beta=.196$, $t=3.134$, $p<.01$), 기술관리($\beta=.197$, $t=3.626$, $p<.001$), 외모관리($\beta=.136$, $t=2.162$, $p<.05$), 지식관리($\beta=.221$, $t=3.69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기관리가 도전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7〉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도전

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08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도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289이였으며 결정계수(R^2)가 .27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7.4%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9.564$,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전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관리($\beta=.144$, $t=2.269$, $p<.05$), 비대면관리($\beta=.103$, $t=2.474$, $p<.05$), 지식관리($\beta=.315$, $t=5.20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기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able 8〉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71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공차값은 .564-.879 였으며, VIF값은 1.138-1.772로 나타났다.

Table 6. 자기관리가 자기조절감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self efficacy	(Constant)	1.429	.228		6.268***		
	H	-.039	.036	-.059	-1.064	.739	1.353
	IM	.196	.063	.194	3.134**	.587	1.703
	TM	.197	.054	.220	3.626***	.612	1.634
	UM	.024	.032	.038	.746	.879	1.138
	AM	.129	.059	.136	2.162*	.564	1.772
	KM	.169	.046	.221	3.690***	.626	1.598

$R^2=.350$, adj $R^2=.337$, $F=25.940$, $p<.001$, Durbin-Watson index=2.032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Table 7.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Challeng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challenge	(Constant)	1.086	.301		3.609***		
	H	.010	.048	.012	.202	.739	1.353
	IM	.108	.083	.085	1.307	.587	1.703
	TM	.163	.072	.144	2.269*	.612	1.634
	UM	.103	.042	.131	2.474*	.879	1.138
	AM	.040	.078	.033	.505	.564	1.772
	KM	.315	.060	.327	5.208***	.626	1.598

$R^2=.289$, adj $R^2=.274$, $F=19.564$, $p<.001$,

Durbin-Watson index=1.908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Table 8. Effect of self-management on job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job performance	(Constant)	1.077	.264		4.077***		
	H	.023	.042	.031	.545	.739	1.353
	IM	-.036	.072	-.031	-.491	.587	1.703
	TM	.193	.063	.192	3.073**	.612	1.634
	UM	.098	.037	.139	2.676**	.879	1.138
	AM	.123	.069	.116	1.781	.564	1.772
	KM	.269	.053	.313	5.071***	.626	1.598

$R^2=.313$, adj $R^2=.299$, $F=21.952$, $p<.001$,

Durbin-Watson index=1.971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R)은 .313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299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1.952$,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관리

($\beta=.192$, $t=3.073$, $p<.01$), 비대면관리($\beta=.139$, $t=2.676$, $p<.01$), 지식관리($\beta=.313$, $t=5.07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자기관리가 환경성파에 미치는 영향

〈Table 9〉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환경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Table 9.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Environmental Performance	(Constant)	1.435	.353		4.069***		
	H	.087	.056	.098	1.542	.739	1.353
	IM	.160	.097	.118	1.649	.587	1.703
	TM	.014	.084	.011	.161	.612	1.634
	UM	.118	.049	.142	2.426*	.879	1.138
	AM	-.003	.092	-.002	-.031	.564	1.772
	KM	.168	.071	.164	2.368*	.626	1.598

$R^2=.133$, $\text{adj } R^2=.155$, $F=7.400$, $p<.001$,
Durbin-Watson index=1.989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Table 10. How Self-Management Affects Customer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Customer Performance	(Constant)	1.205	.264		4.569***		
	H	-.025	.042	-.035	-.587	.739	1.353
	IM	.150	.072	.137	2.072*	.587	1.703
	TM	.181	.063	.187	2.882**	.612	1.634
	UM	.076	.037	.113	2.080*	.879	1.138
	AM	.175	.069	.172	2.542*	.564	1.772
	KM	.078	.053	.094	1.464	.626	1.598

$R^2=.253$, $\text{adj } R^2=.237$, $F=16.309$, $p<.001$,
Durbin-Watson index=2.073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89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환경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R)은 .133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155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7.400$,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성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대면관리

($\beta=.142$, $t=2.426$, $p<.05$), 지식관리($\beta=.164$, $t=2.638$,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자기관리가 고객성가에 미치는 영향

〈Table 10〉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고객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2.073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Market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Market Performance	(Constant)	.673	.350		1.923		
	H	.051	.056	.056	.916	.739	1.353
	IM	-.003	.096	-.002	-.027	.587	1.703
	TM	.116	.083	.094	1.390	.612	1.634
	UM	.170	.048	.197	3.511**	.879	1.138
	AM	.252	.091	.193	2.756**	.564	1.772
	KM	.101	.070	.096	1.443	.626	1.598

$R^2=.197$, adj $R^2=.181$, $F=11.841$, $p<.001$,
Durbin-Watson index=1.927

* $p<.05$, ** $p<.01$, *** $p<.001$

H: Healthcare. IM: Interpersonal Management. TM: Technical Management.

UM: Untact management. AM: Appearance Management. KM: Knowledge management.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R)은 .253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237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6.309$,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인관리($\beta=.137$, $t=2.072$, $p<.05$), 기술관리($\beta=.187$, $t=2.882$, $p<.01$), 비대면관리($\beta=.113$, $t=2.080$, $p<.01$), 외모관리($\beta=.172$, $t=2.54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자기관리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Table 11〉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27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R)은 .197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181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1.841$,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대면관리($\beta=.197$, $t=3.511$, $p<.01$), 외모관리($\beta=.193$, $t=2.75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able 12〉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842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공차값은 .615 였으며, VIF값은 1.62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R)은 .170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16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6.4%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9.93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조절감($\beta=.220$, $t=3.237$, $p<.01$), 도전감($\beta=.238$, $t=3.50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Job performance	(Constant)	1.204	.235		5.114***		
	Self-regulation	.325	.071	.289	4.571***	.615	1.627
	Challenge	.267	.056	.299	4.733***	.615	1.627

$R^2=.280$, adj $R^2=.275$, $F=57.063$, $p<.001$,

Durbin-Watson index=1.842

* $p<.05$, ** $p<.01$, *** $p<.001$

Table 13. Effects of Self-efficacy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Environmental Performance	(Constant)	1.224	.301		4.069***		
	Self-regulation	.294	.091	.220	3.237**	.615	1.627
	Challenge	.252	.072	.238	3.501**	.615	1.627

$R^2=.170$, adj $R^2=.164$, $F=29.933$, $p<.001$,

Durbin-Watson index=1.943

* $p<.05$, ** $p<.01$, *** $p<.001$

3.9. 자기효능감이 환경성공에 미치는 영향

〈Table 13〉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환경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43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환경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170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16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6.4%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9.93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성공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조절감($\beta=.220$, $t=3.237$, $p<.01$), 도전감($\beta=.238$, $t=3.50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 자기효능감이 고객성공에 미치는 영향

〈Table 14〉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고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

면 Durbin-Watson 값은 2.019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고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268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263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26.3%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53.560$,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고객성공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조절감($\beta=.386$, $t=6.053$, $p<.001$), 도전감($\beta=.180$, $t=2.82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자기효능감이 시장성공에 미치는 영향

〈Table 15〉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시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은 1.931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4. Effect of Self-efficacy on Customer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Customer Performance	(Constant)	1,411	.228		6,198***		
	Self-regulation	.417	.069	.386	6,053***	.615	1,627
	Challenge	.154	.055	.180	2,825**	.615	1,627

$R^2=.268$, adj $R^2=.263$, $F=53.560$, $p<.001$,
Durbin-Watson index=2.019

* $p<.05$, ** $p<.01$, *** $p<.001$

Table 15. Effects of Self-efficacy on Market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Market Performance	(Constant)	.941	.306		3,078**		
	Self-regulation	.240	.092	.174	2,602**	.615	1,627
	Challenge	.339	.073	.310	4,628***	.615	1,627

$R^2=.193$, adj $R^2=.188$, $F=35.079$, $p<.001$,
Durbin-Watson index=1.931

* $p<.05$, ** $p<.01$, *** $p<.001$

뷰티 전문가의 자기효능감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R)은 .193이었으며 결정계수(R^2)가 .188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5.079$,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조절감($\beta=.174$, $t=2.602$, $p<.01$), 도전감($\beta=.310$, $t=4.62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 요인 중 대인관리는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감과 경영성과의 하위요인인 고객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미칠

때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21-23] 나타나 본 논문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뷰티 서비스가 소비자와의 대면을 통한 인적 서비스로서 뷰티 전문가의 태도, 의사전달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자기조절감이 높을수록 고객과의 소통 및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객 재방문과 충성도가 증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외모관리는 자기조절감과 고객성과, 시장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나[24-26]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뷰티 전문가의 주된 업무가 미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외모를 다루는 일이므로 뷰티 전문가는 평범한 사회인 보다 높은 수준의 외모관리가 더욱더 전문가처럼 보여 질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뷰티 전문가에 대한 외모평가는 기술을 평가하는 간접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뷰티 전문가다운 외모관리가 고객 유치 및 관리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관리는 자기효능감 요인의 자기조절감과 도전감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성과 중 직무성과와 고객성과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뷰티 서비스는 인적서비스에 앞서 기술적인 측면이 높

게 인식되고 있다. 현대는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뷰티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27, 28]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직무성과와 고객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9, 30]의 논문의 결과와도 같다.

자기관리 중 지식관리는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영성과 중 직무성과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뷰티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비자와 접촉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부터 전문가의 자기관리 요인 중 비대면관리란 뷰티상품 소개 및 마케팅 등의 부분을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상당부분 전이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SNS를 통한 뷰티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활용하다보니 자기효능감 중 도전감과 직무성과, 환경성과, 고객성과, 시장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뷰티전문가의 자기관리는 자기효능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경영성과에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관리를 통해 뷰티 전문가 자신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경영성과에 반영이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H. J. Kim, Development Self-Management Measurement Model of Beauty Service Expert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2021).
2. H. S. Kim, H. S. Park,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ognitive Behavior Counseling Techniques: Self-Management Act I", *Youth Counseling Study*, Vol.26, No.4 pp.13-43, (1996).
3. H. J. Heo, Structural Validation of Athletes' Self-Management Measurement and Cause and Effect Model Test(Docto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4. H. I.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4, No.4 pp.823-833, (2016).
5. H. S. Kim, "Influence of Self Management and Mental Power on Athlet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8 pp.391-397, (2010).
6. J. Y. Kim, M. G Kang, B. J. Choi,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Self-Confidence and Performance in College Combat Sports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8, No.3 pp.1039-1048, (2020).
7. H. J. He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ASMQ)",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4, No.2 pp.95-109, (2003).
8. S. H. Choi, S. H. Seol, "The Relationship among Self-Management, Physic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for Middle Aged Golf Participa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460-468, (2020).
9. H. W.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management, self-Efficacy[i.e. Efficacy], and achievement of danc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5, No.5 pp.921-934, (2016).
10. J. S. Shin, H. G. Yo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Management Behavior,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of College Golf Athlete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7, No.2 pp.283-294, (2018).
11. B. C. Jeong, "Relationship among Self-management, Self-efficacy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Athlet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6, No.1 pp.147-157, (2014).
12. J. H. Na, S. Y. Lee, E. J. Park, "Effect of in the Work of a Beauty Career on Self-Effec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6, No.4 pp.726-732, (2020).
13. E. S. Jeong, "The Relationship Among

- Self-management, Job Involvement, and Non-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of a Manager in a Small-Sized Foodservice Enterpris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2, No.9 pp.157-173, (2018).
14. M. J. Kim, S. I. Chang, "A Study on the Impact of Executive's Consulting Competency of Business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15, No.1 pp.195-210, (2015).
 15. Y. S. Lee, study on the effects service leade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of foodservice organization(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16. H. E. Kim, S. U. Park,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Hair Designer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5, No.3 pp.563-570, (2020).
 17. J. H. Kim, K. H.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Engagement of Workers in the Beauty Industr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Vol.23, No.4 pp.5-19, (2020).
 18. H. J. Kim, Development Self-Management Measurement Model of Beauty Service Expert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2021).
 19. J. H. Na, S. Y. Lee, E. J. Park, "Effect of in the Work of a Beauty Career on Self-Effec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6, No.4 pp.726-732, (2020).
 20. H. E. Kim, S. U. Park,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Hair Designer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5, No.3 pp.563-570, (2019).
 21. J. Y. Kim, Y. Y.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urroundings, Employee Service, Customer Emotion and Service Loyalty -A Focus on Upscale Restaurants",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17 No.15, pp.753-763, (2007).
 22. M. J. Kim,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Korean Review of Corporate Management*, Vol.9, No.3 pp.209-232, (2018).
 23. H. H. Lee, Y. J. Yoo, "The Effect of Food Service Foun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22, No.2 pp.215-243, (2019).
 24. J. H. Song, K. H. Kim,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Vol.23, No.2 pp.65-79, (2020).
 25. H. Yoo, S. H. Choi, "Influence on achievements on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ies in workplace",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Vol.42, No.2 pp.405-416, (2014).
 26. G. S. Oh, S. O. Bae, "The Effects of Beauty Shop Customers' Appearanc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Their Make-up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Vol.26, No.2 pp.351-361, (2020).
 27. J. H. Jeong, A Study on Case Analysis of Trends of K-pop Star Image, *Association for Beauty Business*, Vol.14 No.1, pp.51-65, (2020).
 28. E. G. Sin, C. O. Yu, J. G. Kim, "Moderation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Effects of Hotel Employees' Self-Efficacy to Job Performance", *Tourism Research in Northeast Asia*, Vol.11 No.3, pp.83-108, (2015).
 29. J. H. Chin, S. Y. Soo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aekwondo Master's Positive Affectivity,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28 No.10, pp.405-422, (2016).
30. Y. A. Beak, Y. Jung, T. S. Yoo, "The Corelation between of Cosmetology Worker's Self Efficacy, Professional Ethics, and Job Satisfaction with Customer Orientat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Vol., No.49, pp.229-242, (2015).